

BNK, 상생 위해 포용적 금융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



협약을 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영세사업자에 1천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9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1천억원 한도로 업체당 최대 2년까지 최대 1억원, 최저 연 1.5%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4월에는 500억원 규모의 '모두론'을 출시해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분할상환금과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하며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BNK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118개의 지역 영세기

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혈액 수급난에 힘을 보태기 위해 'BNK사랑의 헌혈' 행사도 했다. 부산은행 본점 등에서 진행된 헌혈 행사에서 그룹 임직원 300여명이 헌혈을 통해 생명나눔에 동참했다.

김지완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도움을 준다면 이 고비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BNK도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해가는 동반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❶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진행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에 참여한 김지완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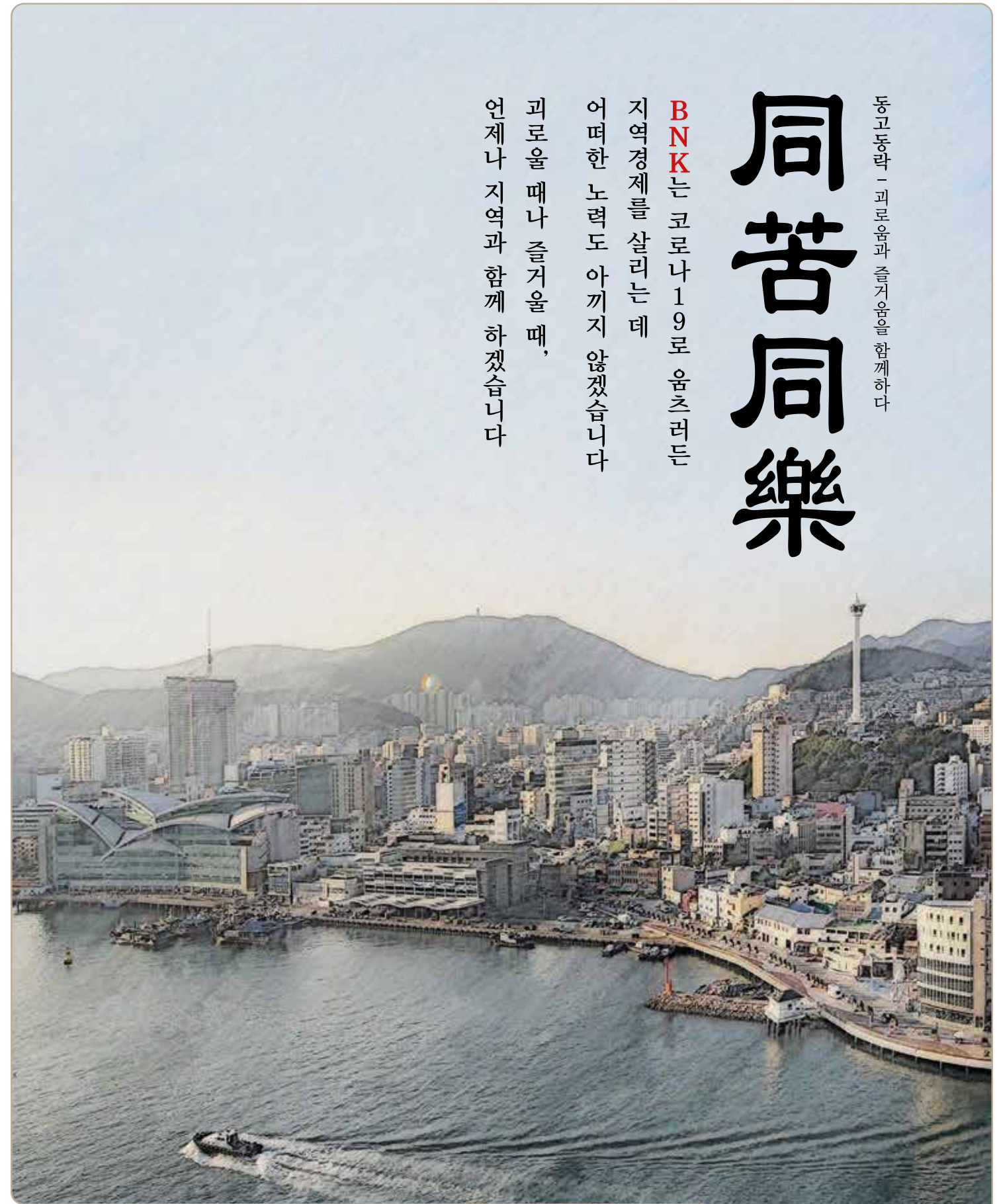
BNK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러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BNK는 지난 2월 17일 침체한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과 신동아상가,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등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지완 회장을 비롯해 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 BNK캐피탈 이두호 대표이사, BNK저축은행 성명환 대표이사 등 그룹 계열사 임직원 60여명이 참여해 200여개 점포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했다.

부산은행 각 영업점에서도 인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BNK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총 2억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구매한 물품 전량을 지역 복지기관에 지원하고 고객 사은품으로 사용했다. BNK는 이밖에 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매년 1억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매해, 지역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BNK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난 1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1천억원씩, 총 2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조성,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 시 금리 1.0% 감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행은 부산시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용금융 확대'



동고동락 -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다

同苦同樂

BNK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
언제나 지역과 함께 하겠습니다